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만나는 일상 속 예술 향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이 2016년 첫 선을 보인 'ACC 브런치 콘서트'는 인기 문화상품이다. 1년 프로그램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패키지는 매년 조기 매진되는 등 관객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콘서트는 클래식, 무용, 국악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관객에게 일상 속 예술 향유 기회와 함께 예술가와 진솔하게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ACC 브런치 콘서트' 2020년 프로그램이 공개됐다. 먼저 26일 열리는 첫 공연은 '트위스트 인 클래식 TWIST IN CLASSIC'이다. 신예 클래식 스타 더블베이스리스트 성민제와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TIMF 앙상블의 협연무대로 현대음악과 가벼운 클래식을 소개한다.

두 번째 무대는 하피스트 광정 & 하피데이 앙상블의 '하프 콘서트 HARP CONCERT' (3월 25일)이다. 세계적인 하피스트 광정과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하피스트들로 구성된 하피데이앙상블의 4인 하프 연주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부터 '아리랑', 가곡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4월 29일에는 장애인인 날 40주년을 기념해 하트하트 오케스트라가 '하트 투 하트 콘서트 HEART TO HEART CONCERT'를 준비했다.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챔버오케스트라로 2006년 창단 이후 뉴욕카네기홀 초청공연 등 활발한 연주를 통해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롤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동화적인 스토리텔링과 마임, 슈도우그래피, 미디어 아트, 신체극 등을 독창적인 미술과 결합해 선보이는 스



강은일 광정

냅 SNAP'은 5월 27일 열린다. 6월 24일에는 타악그룹 타고(TAGO)의 '맨 앤 드럼 MAN AND DRUM'이 관객과 만난다. 젊은 전통 타악 예술가들이 모인 타고의 다이나믹한 연주와 화려한 장단, 상모들리까지 다양한 퍼포먼스를 만날 수 있다.

이어 장르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밴드 '두 번째 달'과 차세대 만능 소리꾼 고영열이 아시아 스토리를 담은 제작공연 '스토리 인 아시아 STORY IN ASIA' (7월 29일)를 선보인다.

강은일 해금플러스 '오래된 미래 - 해금으로 현대사를 연주하다'는 8월 26일 열린다. 크로스오버 음악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강은일이 현대음악, 재즈 등 장르를 넘나들며 개성있는 해금연주를 준비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던 영화에 담겨있는 재즈 음악들을 토크와 연주로 만나는 '재즈 인 더 무비'는 9월 23일 열린다. 재즈평론가 황덕호의 진행과 'Jin Kim the Jazz Unit'의 연주로 영화 속 재즈음악들을 들려준다.

또 재즈를 대표하는 뮤지션 마이즈 데이비스 그리고

'ACC 브런치 콘서트' 10개 공연 공개
26일 성민제·TIMF앙상블 무대
강은일·광정·황덕호·정영주 등 출연
12일까지 패키지 티켓 할인판매



황덕호

은 정영주의 토크콘서트 'Music in My life' (11월 25일)다. 정영주는 '맘마미아', '레베카', '팬텀', '명성황후' 등에 출연해 뮤지컬 1세대 배우로 활약하며 올해 데뷔 26년차에 접어들었다. 지치지 않는 열정의 원동력이 되어 준 노래들을 시원한 가창력과 재치있는 입담으로 소개한다.

ACC는 10개 공연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ACC 브런치 콘서트 패키지 티켓'을 4일부터 12일까지 판매한다. 패키지 티켓가격은 20만원이며 고정된 나만의 좌석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예매는 ACC홈페이지, 폴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개별공연(1회) 관람료는 R석 2만5000원, S석 1만5000원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책 읽는 문화 만들어요” ‘2020 청소년 책의 해’ 맞아 토론·동아리 등 추진

'2018 책의 해 조직위원회' 조사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독서 관심도가 20대는 51.8%에서 38.8%로, 30대는 47.3%에서 38.1%로 하락했다. 이 같은 결과는 입시 위주 수업 등 부족한 독서 경험 이전 생애에 걸쳐 독서 관심도를 저하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청소년 독서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문체부는 '2018 책의 해' 성과를 토대로 청소년 독서를 진작시키기 위해 올해를 '청소년 책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청소년이 직접 책을 추천하는 청소년 책 추천 누리집 '북틴넷'이 열리며 청소년이 선정하는 청소년 문학상도 개최된다.

문체부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책의 해 네트워크'를 구성했으며 아울러 출판, 독서, 도서관, 청소년, 서점 등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7대 사업을 확정했다.

먼저 청소년 책의 해 상징과 표어는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스즈즈'로 결정됐다. 각각의 '스'마다 책의 다양성, 성장성, 연결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해석의 여지를 남겨 무한한 가능성을 담았다.

청소년 독서문화 캠페인도 펼쳐진다. 여기에는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청소년 도서축제(북페스티벌), 유튜브 등 매체를 활용해 책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북톡 북툰', 독서 친화적 환경을 견인하는 '청소년 책의 해' 공익 캠페인이 포함됐다.

청소년 독자 현황과 실태를 분석해 대책을 강구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독서문화 조사 연구와 아울러 청소년 책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을 둘러싼 국내외 주요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논리력과 사고력을 증진하는 독서토론 한마당, 청소년 참여형 독서문화캠프, 독서동아리 활동 등도 계속 추진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폴리넬라 오카리나 그룹이 들려주는 멜로디

6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이탈리아 폴리넬라 오카리나 그룹(M.O.G) 초청콘서트가 6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레퍼토리는 프코피에프의 'Sib 장조 행진곡',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의 아리아',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 로시니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피가로 카바티나', 오페라 '알제리 이탈리아인', 오페라 '윌리엄 텔' 등이다.

또 갈 젠키스의 '빨라디오', 요한 스트라우스의 '트위시 트라쉬 폴카', 폴 데스몬드의 'Take Five', 앨런 멩컨의 'Hail

holt queen', 'Shout' 등도 연주된다.

이번 공연에는 M.O.G을 비롯해 에밀라노 베르나코프, N.C.M 오카리나 앙상블, 광주예향오카리나앙상블, 선영, 조귀순 등이 출연한다.

M.O.G은 오카리나 연주자이자 플루티스트인 지휘자 에밀리아노 베르나코프가 이끄는 오카리나 7중주 그룹으로 이탈리아 국립음악원 디플로마를 받은 음악도들로 구성됐다. 2014년 한국 투어를 시작으로 대만, 일본 등에서 연주회를 가졌으며 이탈리아, 폴란드, 중국 등에 초청돼 무대를 선보였다. 관람료 2만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목요국악한마당' 3월로 연기

오는 6일 열리는 목요국악한마당 공연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으로 연기됐다.

광주시 서구는 오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2020 목요 열린국악한마당 공연'을 계획했지만 당분

간 개막공연 등 운영을 3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또 13일 열리는 가야금병창 '음울당' 공연과 20일 김선이 명창의 '홍보가' 공연, 27일 (사)풍류회 '죽선방'의 사관풍류 공연 등도 3월로 미뤄졌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문학사상사는 저작권 침해 말라” 한국작가회의, 비판 성명서 발표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정자·작가회의)는 최근 불거진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운용과 관련해 3일 성명서를 통해 제발 방식을 촉구했다.

작가회의는 '문학사상사의 저작권 침탈에 대한 한국작가회의 성명서'에서 "출판권은 저작권 위에 군림할 수 없는 권리이며, 저작권을 마케팅의 도구로 이용하는 출판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며 "작가들의 목소리와 같은 저작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이며 나아가 작가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모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또한 "1972년 제정된 이래 43회의 수상작품집을 낸 이상문학상의 전통과 권위는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 이룩된 것이 아닌, 작가 이상(李箱)과 한국문학을 사랑하는 '작가-출판사-독자' 모두가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며 "문학상 운영은, 작가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한국문학의 성장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취지 이외에 어떠한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가회의는 "한 작가의 저작권은 열정과 피땀이 고인 생명체와도 같으니 더 이상 저작권과 작가정신을 훼손하거나 강탈하려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2지신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

갤러리 생각상자 11일까지 '12지신에게 말을 걸다'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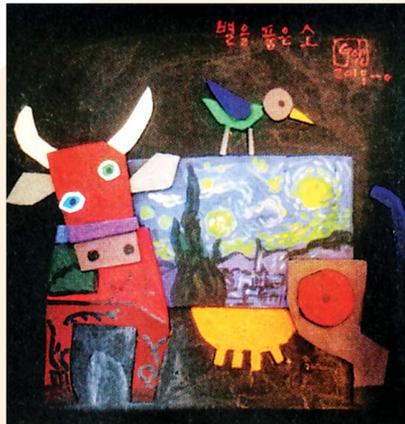
해마다 새해가 되면 12간지 중 그 해에 해당하는 동물을 소재로 한 작품전이 열린다. 올해는 경자년, 쥐띠해인 터라 '쥐'를 모티브로 한 전시회들이 눈에 띈다.

갤러리 생각상자(광주시 동구 남문로 628) 기획초대전 '12지신에게 말을 걸다' (11일까지)는 쥐 뿐 아니라 닭, 개, 원숭이 등 다양한 12간지를 작가 각각의 시각으로 해석한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고대 동아시아의 과학과 신화적 상징을 담고 있으며 무수한 상상력과 지혜의 원천인 12지신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작은 영리한 쥐, 잔꾀를 부리지 않는 소 등 각각의 동물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포착해 윤택하게 표현한 작품들이다.

지난해 '장준하 서거 44주기 추모 판화전-가슴에 품은 돌베개' 전을 열었던 판화작가 이동환 작가를 비롯해 고근호·주홍·백준선·홍성담 작가가 참여해 한국화, 판화 등 다양한 장르로 표현한 12지신을 선보인다. 일요일 휴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고근호 작 '별을 품은 소'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